



세번째 이야기

난민촌에서 시작하다!

[선교지 선교상황① 말라위]



말라위 수도 릴롱게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면 5만여 명의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잘레카'지역이 나옵니다. 콩고, 르완다, 브룬디 등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이 평화로운 나라 말라위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가 땅을 내주고 운영은 UN에서 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난민들에게 배급하는 식량도 반으로 줄어들자 난민들이 UN을 대상으로 데모까지 했습니다.

2022년 7월 7일 박은형 선교사님의 소개로 말라위 난민촌에서 BEE 사역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다소 부담이 되었습니다. 난민구제나 구호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사역이 떠올랐고 또 많은 정치범이 난민촌으로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난민촌 사역에는 관심이 없었고, 말라위 체와 족을 선교 대상으로 하는 말라위 선교사이고 말라위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BEE 사역을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의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선교사가 외면하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여정이 어떠했는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은형 선교사님께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BEE Korea 케냐지부에서 갈라디아서, 일대일 제자 양육, 마가복음 교재를 영어와 스와힐리어 버전으로 각각 100권씩 보내주셨습니다. 말라위에서는 책 만들기가 비싸고,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교재를 받다니……. 그 자체로 은혜였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수요일! 드디어 갈라디아서 첫 수업을 난민들이 준비한 장소(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 30명의 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방문하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건기라서 강한 바람에 의해 흙먼지가 주기적으로 난민촌 교회 안으로 들어와 눈이 따라왔습니다. 전기도 없어서 잘 안 보일 때는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교재를 보았습니다. 따가운 눈으로 비비며 교재를 보고 또 질문하며 진도를 나갔습니다. 주입식이 아니라 이분들이 자기 언어로 이해가 될 때까지 질문하고 예화를 들고 등등……. 진도가 너무 안 나갔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하면 윌리엄 형제가 스와힐리어로 통역을 하다 보니 그리고 다른 문화와 교육 수준의 영향으로 인해 그런 것 같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세미나



콩고, 르완다, 말라위 목회자들의 조별 토론

드디어 10월 5일에 갈라디아서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외치고 가르쳤건만…….그리고 질문도 여러 번 해서 잘 이해했는지 확인도 하고 또 확인했는데…….구원은 ‘믿음 + 행함’이라는 답에 체크한 시험지를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게 가르치나? 나의 영어 실력이 안 좋은가?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지? I.Q는 얼마나 될까? 말라위 주민분들의 평균 IQ는 60~80이라고 하던데, 이분들도 혹시 그런가?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은 고칠 수 없고 채점 후 70점 이하는 과락 처리를 했습니다. 30명 중 90% 이상이 과락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여기 난민촌에서 계속 해서 해야 하나? 자조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냐지부에서 보내준 학습서들을 보면서 한 과목 더 하자 하고 결심하여 11월 16일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의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 한 명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리라.’라고 마음먹고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중인 난민 목회자들 일대일 제자양육 후

평일에는 선교 치과병원에서 진료하고, 주말에는 말라위 수도 릴롱게에 개척한 교회에서 현지인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치과의 공식적인 휴무일인 매주 수요일에는 난민촌 가서 BEE 사역을 하였기에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수요일에 난민촌 강의실에는 달랑 6명의 학생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학생 리더와 소통에 오해가 생겨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대일 제자양육 과목만 마치고 그만두리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3년 3월 1일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고 2주 쉬고 마가복음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하하….

사역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 쉬는 동안(3월 5일~19일)에 통역으로 수고한 윌리엄 형제, 학생 리더인 존 목사님과 그의 동료들 수도 릴롱게로 초대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면서 feedback 과 의견을 들어보고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미래적인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과 제가 그 길로만 따라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창기 선교사(치과 진료, 주일 설교)

[글쓴이 이창기 선교사]



고려대(식품생명공학)와 인도 bharati vidyapeeth university(Dental College 치의학),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GMS (총회세계선교회) 소속으로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의술을!’이라는 선교 Motto로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2019년 1월 7일에 말라위로 떠났다. 전문인 선교사이자 목회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며, 생을 마감하는 그 날까지 “선교하다가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다. 치과의료선교회, BEE Korea, CCC와 협력하고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BEE 소식

1. 2023년 “빛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빛진 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헬리안이나 야만이나 자혜 있는 자나

여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2. 23년 BEE 섬김프로젝트! '사역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 2023년 BEE 현지인 선교사(과테말라 선교사 9명) 생활비 일부 후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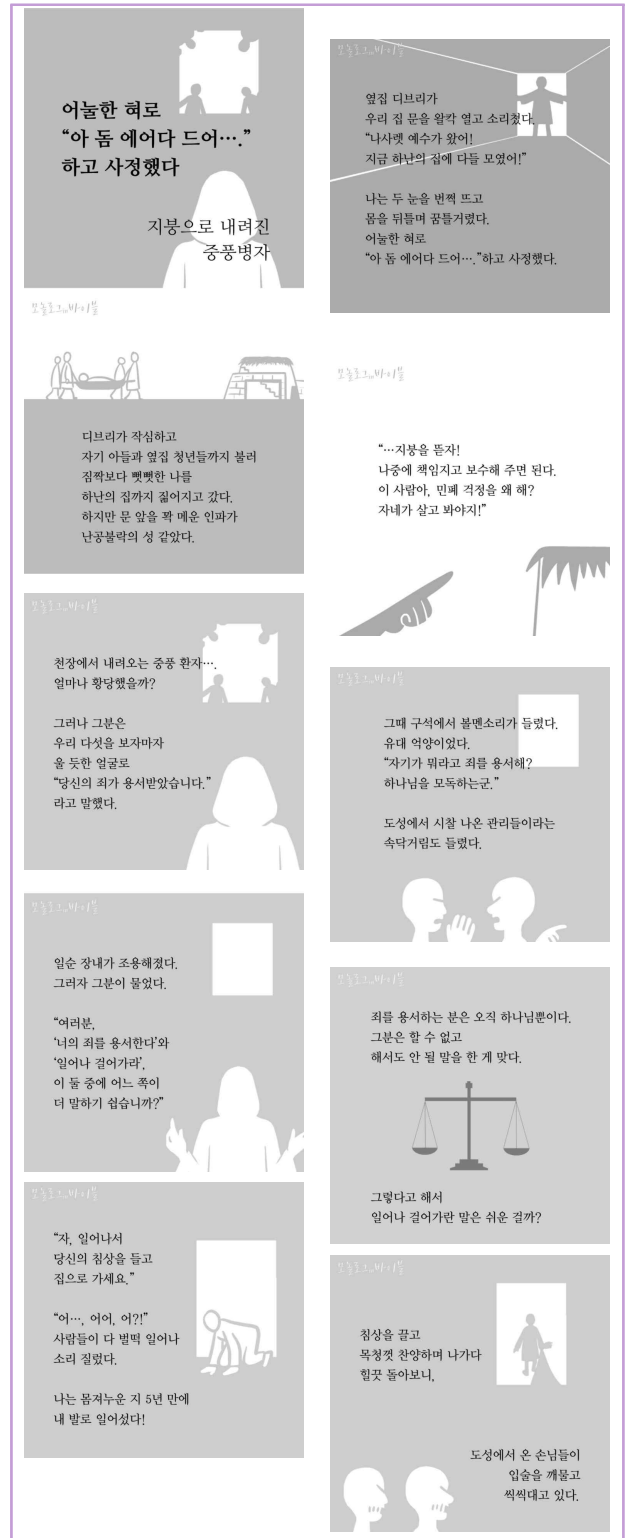
(후원 기간: 2023. 03 ~ 2025. 02

Tel 02- 822-9480 내선 102)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